

농공인이 참여하는 제 3국에서의 농촌개발 지원사업은 확대되어야



김 태 철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1. 우리의 농촌개발 경험

1945년 해방과 1950년 한국전쟁 이후 UNKRA 등 국제 기관원조에 의하여 파괴된 수리시설 복구사업 위주로 지지 부진하던 수리시설개발은 1961년 토지개발사업법이 제정 되면서 크게 활성화 되었습니다. 1965년 전천후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4대강 유역조사와 1967, 68년 연속 가뭄을 계기로 지하수 농업용수개발에 집중투자 되었고 토목기술

과 장비발달로 중장기 계획 하에 체계적인 농업용수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표 1과 같이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대단위농업 종합개발을 시행하면서 수리안전담을 조성하게 되었고 다수확 벼 품종개발과 함께 마침내 민족의 숙원 주곡 자급을 달성하게 되었다. 농촌개발의 기초가 되었던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3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리더십 개발로 지역공동체를 구성하여 주민들 간의 의견수렴에 의한 지역사회의 개발수요를

표 1 우리나라 농업종합개발 차관사업

사업 지구명	연 도	관개면적	차관선	차 관 액	이자율	거치기간	상환기간
		ha		1,000US \$	%	년	년
금 강	1969	30,567	IBRD	45,000	6.5	7	23
영산강 I	1972	34,500	IBRD	48,000	7.25	6	23.5
	II	20,700	IBRD	95,000	8.5	3.5	13.5
	III	12,200	OECF	4,440	4.25	7	18
경 주	1974	1,140	IBRD	2,650	7.25	7	17.5
미호천-1	1976	11,554	IBRD	29,000	8.9	5	17
논 산	1978	9,938	IBRD	36,000	7.9	4.5	12.5
임 진	1974	7,185	ADB	19,000	8.25	7	19.5
남 강	1976	5,754	ADB	32,000	9.10	7	20.5
낙동강	1977	3,600	ADB	12,550	8.30	7	20.5
계화도	1974	2,500	OECF	M. ¥2,867	3.25	7	18
창 녕	1974	2,269	OECF	M. ¥2,543	3.25	7	18
삼교천	1974	24,700	OECF	M. ¥8,735	3.25	7	18
대 호	1978	7,700	OECF	M. ¥14,000	5.25	7	18

표 2 시대별 한국경제와 농촌정비사업의 전개

시 대 별	한 국 경 제	US\$/capita	농 촌 정 비 사 업	시 대 상
1950년대	전란과 복구사업 집중	80	식량해결을 위하여 소류지 건설 등 소규모 수리시설사업	빈곤과 생존
1960년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공업화를 통한 경제개발기반 구축	160	농업토목사업의 전환기로 농지확대 개발과 한해극복의 전천후농업용수 개발 추진	복구와 재건
1970년대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화학공업육성과 자력 성장기반 조성	600	농촌근대화를 위한 수리시설사업 촉진, 식량자금을 위한 대단위 농업 종합 개발사업 추진	개발과 성장 (새마을운동)
1980년대	5, 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안정, 경쟁 촉진 등 국민복지증진	2,250	주곡자급달성과 함께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개선에 중점	성장과 복지
1990년대	문민정부의 경제 OECD회원, WTO 가입 IMF 외환위기	10,800	농업용수개발 10개년계획, 농업소득 향상 및 농촌도로와 농공단지로 농외소득향상과 이농 대응	복지와 환경
2000년대	국민·참여정부 경제 (공공, 금융, 기업, 노동 4개 부문개혁, 구조조정)	20,400	농업진흥지역 개발, KOICA를 통한 국제 관개사업지원, 북한 농지복원 사업 등 경제협력기대,	환경과 정보
2010년대	신 개발성장 정책	?	농업진흥지역 밖, 농업생산기반확충 및 시설현대화, 쾌적한 농촌	인간과 생명

선정하고, 공동협력을 통해 지역의 개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역량을 통해 자립기반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새마을운동사업은 효과적인 농촌개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우리 농촌개발 경험의 제3국 전수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선진국과 국제기관의 재정적, 기술적 도움을 많이 받은 만큼 축적된 우리의 농촌개발 기술을 아시아-아프리카 개발 도상국가에 경제협력차원에서 자랑스럽게 관개사업을 재정적, 기술적 차원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달성한 우리나라의 농촌개발경험을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전수하여 개도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변화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다.

1970년대 우리의 1인당 GDP는 600US\$정도로 지금의 세네갈 750US\$와 같은 수준에 있어 우리가 새마을운동과 장기 5개년 경제개발계획 그리고 농업농촌개발정책과 관개배수사업은 이들에게 발전모델이 될 수 있다. 마침 세네갈은 GOANA계획이라는 농촌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

어 우리의 새마을운동과 농촌개발 차관사업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1970년대까지의 한국이 현재 그들과 유사한 환경이었는데 30여년만에 농촌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한국의 농촌발전 비결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 경제성장은 개도국에게 경제성장 모델로 연구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주요한 성장 동력이었던 쌀 자급과 농촌발전을 끊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이미 72개국 2,000명 이상 지도자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지만 문제는 어떻게 각 나라의 조건에 맞게 토착화하느냐 이다.

3. 선택과 집중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패키지 경제지원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계획의 내용을 생각해볼 때 표 2에 1970년대에 우리가 했던 새마을운동 그리고 농촌근대화를 위한 수리시설사업촉진과 식량자금을 위한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접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식기류, 플라스틱류, 가전제품, 생활필수품 등 생산 공장을 건립하여 내수를 진작해야한다. 나아가서는 1980년-2000년대까지의 중공업, IT 산업 발전과정도 경제 협력해야할 것이다.

KOICA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업토목사업은 초기단계 이기는 하지만, 사업별로 지원액이 수백만US\$ 수준으로 규모가 작고, 농업토목 전문가 참여가 매우 미흡하지만 확대 추세에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장기적으로는 새마을운동과 농촌개발-생활필수품 생산 공장-중공업 및 정밀공업 등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일련의 업그레이드된 패키지 경제지원을 고려할 때이다. KOICA는 지원국을 다변화하는 한편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우리와 경험조건이 좋은 나라를 선택하여 업그레이드된 패키지 경제지원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농촌개발사업분야에서 농업토목사업 전담 수행기관과 전문가 그룹의 역할이 매우 지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해외 농촌개발의 참여를 위하여

해외 농업과 농촌개발사업 분야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역할과 해외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KOICA 지원사업 등이 주요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까지 제3세계의 농촌개발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국농촌공사와 대학의 교수, 기업체의 전문 인력에 의해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나, 국내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농공분야의 전문가들 역시 해외

개발사업지구에서 농업과 농촌개발의 분야에서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농공학 분야 전문가들이 과거 중동개발 참여로 쌓은 경험과 기술들이 국내의 농촌개발과정에서 효과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로 적용하지 못하고 과거의 이력에 매여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농공학분야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급속한 국제화에 대응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학문적,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학회의 역할을 뚜렷하게 세우지못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제 미래는 국내에서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쾌적한 초일류 선진농촌정비라는 새로운 학문적 목표설정을 세운 농공비전을 기반으로 하여, 과거 우리나라의 문제와 매우 유사한 단계를 보이고 있는 해외로 농공기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더욱 넓혀가야 할 것이다. 특히 OECD에 가입한 선진국가로서 과거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지원하는 국가 역할에 걸맞게 UN,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orld Bank) 관련 사업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미래 인력양성사업은 사전 단계부터 KOICA 등과 연계한다면 더욱 빨리 세계화에 적응한 농공인을 배출하고 미래의 세계 농촌개발사업에서 활약하고 있는 많은 농공인을 볼 수 있을 것이다.